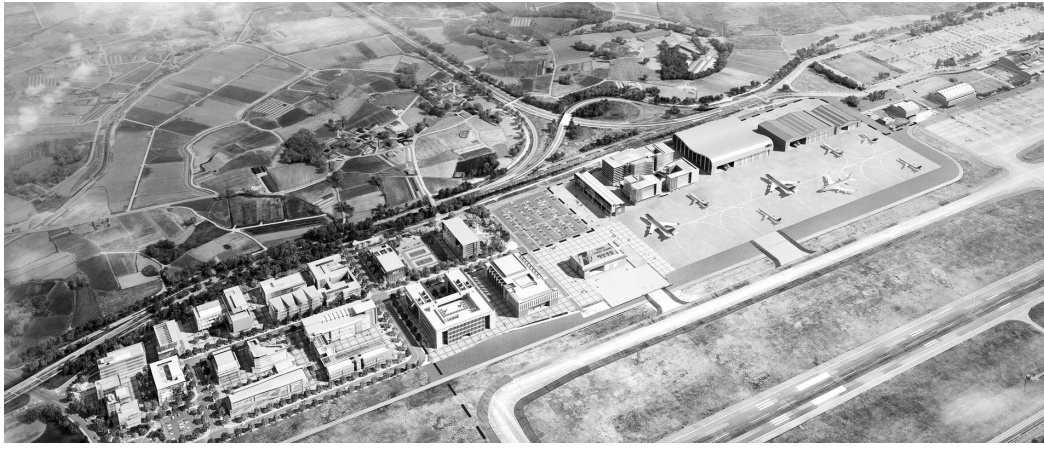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총력전

격리의무 해제 이후 이용자 늘어
국제 정기 노선 유치 꺾걸음
올 항공사 재정 지원금 12억원
항공특화 산단 조성 등도 박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에 35만688㎡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조감도.

무안 항공특화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무안군이 항공사 재정지원금을 늘리는 등 공항 활성화에 나선다.

27일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항 이용객은 국제선 9만8864명·국내선 6358명 등 10만 5222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한 해 이용객(89만5410명)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6월 해외입국자 격리의무가 완화되면서 국제선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한 해 무안공항 이용객은 4만6248명(696편 운항)으로,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했던 2021년에 비해 130% 증가했다.

올해 1월 전남도가 태국 방콕 노선 전세기 운항 업무협약을 맺은 뒤 같은 달 30일 태국 관광객 174명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올해 3월부터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 현재 무안국제공항 국제선의 경우 베트남 4개 노선(나짱·다낭·달랏·호치민)과 중국 장자제, 일본 기타큐슈,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보라카이 등 5개국 8개 노선이 운항 중 이거나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 제주 주 7회, 김포 노선은 주 3회 운항한다.

27에는 베트남 나짱과 필리핀 보라카이 하늘길이 열렸고, 오는 30일에는 호치민 노선이 뜬다.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에는

말레이시아와 대만 등 6개국 8개 정기 노선이 무안국제공항에서 취항했다. 미국 괌과 캄보디아 등 5개국 9개 노선도 비정기 운항했다.

무안군은 최근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티웨이·진에어·하이 에어항공 등 6개 국적 항공사를 찾아 정기 국제·국내선 취항을 요청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보유한 항공기가 부족해 빠른 기간에 정기 노선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항공사들의 입장이다.

올해 무안군은 무안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들에게 주는 재정지원금을 1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안군은 제주항공 5억2000만원, 피서리항공 6400만원, 하이에어 6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앞서 국회를 찾아 무안국제공항 정기 노선 조기 정상화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역안배 슬롯(운항 시간) 배분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슬롯이란 항공사가 특정 항공에 특정한 날짜, 시각에 운항할 수 있게 배정된 시간을 뜻한다.

무안군은 항공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항공MRO(정비·수리·개조), 항공물류, 부품 등

고정적인 항공화물 운송량 확보에 힘쓰고 있다. 군비 448억원을 들인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35만688㎡ 부지에 첫삽을 뚫고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인 항공정비산업에 미래 먹거리 삼는다는 방침이다.

무안군은 오는 2025년 건립이 예정된 무안공항 KTX(고속철도)역과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에는 대형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공사 조기 완공을 위해 부산지방항공청, 전남도, 시공사, 망운면 주민 등 30여 명과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100만 이용객을 바라보는 저력 있는 공항이었지만 정상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안국제공항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관문으로서 무안군을 대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가요제·서커스·물싸움...해남 송호해변 여름축제

28~30일...보트 타기 등 체험도

해남군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송호해변에서 '여름축제'를 연다.

첫날에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해남지회가 주관하는 '송호해변 가요제' 예선·본선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해변 워터밤'(물싸움)과 미술 공연, 서커스 등이 진행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대형 모래 조각 전시와 해변 보트 탐험, 워터 타투(문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물 미끄럼틀과 식·음료장이 손님을 맞이한다.

같은 날 인기 가수 공연과 함께 해변 불꽃 잔치도 벌어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조아람의 공연과 전자음악(EDM) 공연도 이어진다.

해남 땅끝마을 가는 길에 있는 송호해변은 지난 14일 개장했다. 고운 모래사장 and 울창한 해송림이 펼쳐진 대표 휴양지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해남 송호해변에서 오는 28~30일 열리는 여름축제에서는 직접 모래 조각을 해볼 수 있다.

완도군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32종 개발

특히 출원 통해 상품 출시 계획

해양치유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내건 완도군이 해양치유 요법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개발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가 '테라피 제품' 32종(사진)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해양치유센터는 바닷물과 갯벌, 해조류 등 16개 치유 요법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해조류와 갯벌을 주원료로 하고, 황철, 비파, 유자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왔다.

제품은 제조사 개발 생산(ODM) 방식으로 만들어냈다. 브랜드(BI)는 '바다'와 '정정함'을 결합한 '메르클레'(MERCLAR)로 정했다.

완도군은 앞으로 특허 출원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지식 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 제품으로는 혈액 순환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는 머드팩, 주름 개선과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는 식물체 연화 기술을 활용한 해조류



고농축 화장품, 긴장 완화·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입욕제, 신진대사 활성화·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는 목욕제 등이다.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은 “완도 해양치유센터 찾는 방문객들이 이밖에 개발된 완도의 청정한 바다를 그대로 담은 테라피 제품을 이용하며 해양치유 체험을 만족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제품을 기념품 등 완도 해양치유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실시간 재난·재해 3D 대응 체계 구축

다음달부터 예측 체계 시범 운영

영광군이 3차원 기반 실시간 재난·재해 관리 대응 실험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다음 달 시범 운영한다. 영광군은 국토교통부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7억원을 확보, 실시간 재난·재해 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3차원(3D)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다. 드론과 정보통신기술(ICT) 센서, 기상예보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관찰하고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실시간 예측을 할 수 있다.

홍수와 침수 등 피해를 예측 분석해 실시간으로 마을 방송과 문자 안내를 통해 사전 침수 발생 정보 알림, 대피소 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미리 실시간 수위와 침수 상황을 예측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영광군이 다음 달 시범 운영하는 실시간 재난·재해 예측 모습. (영광군 제공)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국지성 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침수, 저수지 월류, 붕괴위험 분석을 통해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한 상황 전파와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목포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245대 구매 보조금

목포시가 올해 하반기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245대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한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430만원, 초소형 763만원이다.

'2023년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구매 보조금은 오는 12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찾아 구매계약을 맺은 뒤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무

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으로 내면 된다. 접수 후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지원 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에 대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